

맨큐의 경제학 따라 읽기 10 경제학의 여러 학파들

글. 권태혁 아리랑국제방송 기술센터 부장

특별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경제학에는 한 가지, 즉 맨큐의 경제학과 같은 신고전주의 경제학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맨큐의 경제학은 많은 대학 경제학부의 대표적이고 절대적인 교과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의 분류에 따르면 아홉 가지나 있다. 여러 학파는 서로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고, 타협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다양한 경제학의 존재함을 아는 것은 경제를 개념화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특히 절대 반지와 같은 불변의 진리인 한 가지의 경제학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길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론이라는 것 자체의 성질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회과학 이론은 어느 정도는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해야 하므로 실제 세상의 모든 면을 포착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게다가 자연

과학과 달리 경제학은 가치판단이 들어가는 학문이다. 경제적 주장에 따라 특별히 더 이익을 보는 집단이나 계급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의 언론환경을 살펴보면, 종이신문을 발행해 온 레거시 미디어의 경우 대기업 광고주들에게 영업을 해야 겨우 생존할 상황에 몰려 있으므로 그들의 경제적 주장은 대기업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런 매체의 주장을 지속해서 듣다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맨큐와 같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가치중립적인 경제학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경제학들이 여럿 존재하고 있다. 무미건조한 통계 지표와 숫자에도 분석하고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 온갖 종류의 가치판단이 깃들여 있다. 무엇이 잘사는 것인지, 소수 계층의 경제적 이익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무엇을 발전이라 정의할지, 공공선과 성장의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지 등등에 관해서 말이다. 특정한 정치적,

도덕적 관점에서는 어떤 이론이 옳을지라도, 관점이 달라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장하준 교수의 분류법에 따라 여러 가지 관점을 요약하여 살펴볼 것이다.

고전주의 학파

우리가 맨큐의 경제학을 가지고 경제학을 살펴본 것과 같이 오늘날의 경제학계는 신고전주의 학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신고전주의 이전에 고전주의가 있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집필하여 경제학을 창시했고, 그 첫 번째 모델은 고전주의였다.

고전주의 학파는 경제 주체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국부의 극대화라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역설적인 결과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쟁 덕분에 가능하다. 생산자들은 이윤을 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 싸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게 되고, 궁극적으로 최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경제의 생산량을 최대화한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경제학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비유가 되었다. 주로 시장 지배적 기업이 정부의 간섭을 배척하고 싶을 때, 광고가 급한 신문사에서 그 지배적 기업을 대신해서 주장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이용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할 테니 정부는 좀 빠지라고 한다. 이렇게 시장 자율에 맡기라는 의견이 주류가 되면, 시장은 시장지배적 기업의 보이지 않는 손이 좌지우지하게 된다.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는 꽤 많이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누리는 강자의 자유는 ‘그들이 지배적 사업자가 되기가

지 노력을 많이 했으므로 공정한 것이다’라는 주장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요즘 이십 대의 주장은 서울의 명문대학 커뮤니티에서 주로 생산되는 듯하다. 고등학교 시절 남들보다 노력해서 얻는 명문대학 입학 자격을 가지고 사회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주장할 수 있어야 공정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수능 점수 낮은 학교 졸업생들과는 다른 대우를 요구한다. 이런 공정 프레임을 비명문 학교 출신들조차도 내면화하는 듯하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선망하는 직업군인 검사, 판사, 의사 집단들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생각도 이와 비슷하여, 이들 엘리트 집단들 내부 구성원들 간의 합법을 가장한 봐주기, 챙겨주기에는 크게 항의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엘리트 집단에 대한 극복할 수 없는 열등감이 작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고전주의 학자들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른바 ‘세의 법칙’을 정말 믿었다. 이것은 모든 경제활동이 생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임금, 이윤 등의 소득을 수반하므로 수요부족으로(생산물을 아무도 안 사서) 인한 불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시장은 성격상 불황을 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적자지출을 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부개입을 혐오했던 이 시절에는 짧고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불황들이 불필요하게 길고 깊었다. 이 덕분에 이미 여유자금을 많이 비축한 지배적 사업자들이 저가 정책을 통해 경쟁 사업자들을 파산시키고 이를 인수하여 독점 사업자로 변신하는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다. 어릴 적 위인전에서 읽었던 철강

왕, 석유왕 등의 그들이다.

신고전주의 학파

신고전주의 경제학파는 1870년대 윌리엄 제번스와 레옹발라의 연구를 토대로 형성되기 시작해 1890년 알프레드 마셜의 ‘경제원론’이 출간되며 자리를 굳혔다. 고전주의 시절에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이란 이름을 사용했는데, 신고전주의 학자들은 여기서 정치를 도려내고 ‘경제학’으로 개명했다. 이들은 경제 분석에서 정치적인 주관적 가치판단을 제거하고 순수한 과학으로 대우받고 싶었던 것이다. 신고전주의자들도 경제학을 가지고 과학처럼 분석과 예측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으로는 과거 사실에 대한 분석을 겨우 할 뿐이다.

신고전주의 학파는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소비자가 내리는 주관적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수요 조건의 역할을 강조한다. 반면 고전주의학자들은 재화의 가치가 공급 조건, 즉 생산비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이 비용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 시간으로 측정했는데, 이것을 노동가치설(labor theory of value)이라고 한다.

신고전주의 학자들은 상품의 가치(시장 가격)는 잠재적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생산하기 어려워 노동이 더 많이 투입된 상품이 시장가격이 높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고전주의 학파는 뚜렷이 다른 계급들이 모여 경제를 구성한다고 생각한 데 반해 신고전주의는 경제가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을 ‘효용을 추구하는 기계’라고 부르며, 최저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규정했다. 신고전주의는 경제학의 중심을 생산에서 소비와 교환으로 이동시켰다. 고전학과 애덤 스미스는 사냥, 유목, 농업, 상업 등 주된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라 사회가 단계적으로 발전한다는 역사관을 가졌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신고전주의는 경제체제를 ‘독립된 의지와 판단을 가진’ 개인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동작하는 교환관계의 그물로 본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신고전주의는 경제 주체들의 이기적인 동기가 경쟁을 통해 사회에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생각과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믿음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이러한 자유방임적 결론은 20세기 초 사회의 개선(발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고안된 ‘파레토 기준’에 의해 한층 더 강화되었다. 빌프레도 파레토는 독립의지를 가진 모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사회구성원 가운데 누구의 상황도 나빠지지 않으면서 일부의 상황이 나아져야만 그 사회적 변화를 개선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개념인 파레토 기준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사회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알아차리듯이 실제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변화는 가능하지 않다. 플랫폼을 독점하여 초과 이익을 거두는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떻게 플랫폼에 묶여있는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지배적 사업

자들과 대자본가들에게 얼마나 복음과도 같은 축복의 메시지였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언론을 통해 파레토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선동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파레토 기준을 채용함으로써 신고전주의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

마르크스 학파

마르크스 경제학파는 1840년대에서 1860년대 사이 발표된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토대로 발전했다. 마르크스 학파는 고전주의를 계승했다는 신고전주의보다 더 많은 고전주의 이론을 계승했다. 마르크스 학파는 노동 가치론을 채택한 반면 신고전주의는 이를 부정하고, 생산에 초점을 맞춘 마르크스 학파와 달리 신고전주의는 소비와 교환이 관심의 대상이다. 마르크스 학파는 경제체제가 개인보다 계급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신고전주의가 거부한 고전주의의 요소 중 하나이다.

마르크스 학파는 ‘생산이 사회질서의 기초’라며, 모든 사회는 경제를 하부구조로 놓고 그 위에 건설된다고 주장한다. 이 하부구조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 기반 위에 상부구조가 세워지는데 문화, 정치, 인간 생활의 기타 측면의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인 경제가 운영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에서 마르크스는 경제에서 제도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탐구한 경제학자로, 제도주의 경제학의 전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 학파는 애덤 스미스의 발전단

계 이론을 더 발전시켜 사회가 일련의 생산양식에 의해 규정된 역사적 단계를 거쳐 진화한다고 보았다. 즉, 원시공동체, 고대노예제, 중세봉건제,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순서로 발달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로 진화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은 지난 세기말 구 소련이 붕괴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의 변화 속에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주장한 역사발전단계는 자신이 살아가던 유럽 사회를 모델로 예측한 것에 불과하고 유럽을 제외한 아시아의 역사발전 단계에는 역지로나도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 학파는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통찰력을 제시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에 주의를 기울인 최초의 경제학자이다. 위계질서가 뚜렷하고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 그리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시장 말이다. 그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업을 ‘시장이라는 무질서한 바다에 떠 있는 합리적 계획의 섬’이라고 비유했다. 이에 더해 당시 ‘주식합명회사’라는 이름으로 부르던, 유한책임을 가진 다수의 주주가 소유하는 대규모 기업이 자본주의를 이끄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당시 대부분의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유한책임이라는 개념 자체를 반대하고 있던 시대에 나온 혜안이었다. 또, 그는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기술 혁신이 갖는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경제학의 존재함을
아는 것은 경제를 개념화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특히 절대 반지와 같은 불변의
진리인 한 가지의 경제학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길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이론의 중심 요소로 삼은 최초의 경제학자였다.

오스트리아학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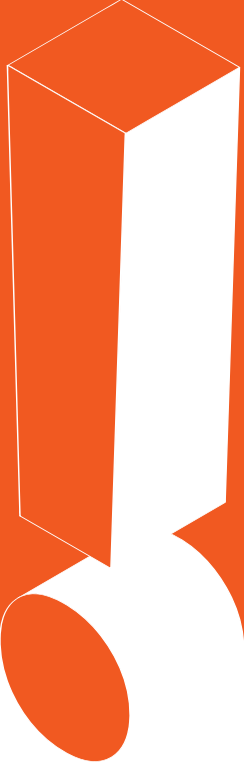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대부분의 신고전 학파 경제학자들보다 자유시장을 훨씬 더 열렬히 지지한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사회주의 소비에트연방이 성립된 후인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중앙계획경제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마르크스 경제학자들과 벌인 ‘계산 논쟁’ 때문에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1944년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통해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잃게 만드는 정부 개입의 위험성을 열정적으로 경고해 대중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주류인 신고전주의 학파와 자유시장 분파와 같은 자유방임적 진영에 속하며, 그들과 비슷하지만 좀 더 극단적인 정책을 추천하곤 한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세상이 고도로 복잡하고 불확실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계산 논쟁에

서 지적한 대로, 아무도 심지어 모든 권력을 잡은 사회주의 국가의 중앙계획기 구조차도 복잡한 경제체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을 수는 없다. 오직 시장에서 일어나는 자생적 질서를 통해서만,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세상의 변화에 반응해 수많은 경제 주체가 만드는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학파는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모든 것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다지 합리적이지 못하고 본질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너무도 많기 때문에 자유시장이 가장 좋은 경제체제라고 주장한다.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가정과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믿음에 기초한 신고전주의의 주장보다는 현실적이다. 주장하는 바가 이와 같다 보니 신고전주의보다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한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잘할 수도 없으니 시장에 불황이나 경제위기 등의 문제가 생겨도 뭘 하려다 더 망칠 수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투기 수요로 부동산 값이 한없이 올라도 정부가 끼어들지 말고 사기업과 패닉 바이킹(panic buying)에 빠진 시장 참여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라는 것이다. 뭘 하려다 보면 더 망칠 것이 뻔하단 것이다. 경기 침체가 와도 불황이 와도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맞을 수도 있으나 정부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익을 보는 집단이나 계층이 있기 마련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나 많은 자본을 축적해 두고 있는 계층이 큰 이익을 볼 것이다. 정부가 규제나 간섭을 멈추면 그들은 지배력을 강화하



각 학파가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단순히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학파를 아는 것은 경제라는
복잡한 대상을 더 풍부하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게 해 준다.

고 가난한 사람들의 조금 남은 재산도 시장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강탈하게 될 것이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불량식품이라도 사 먹을 자유일 뿐이다. 불량식품을 사 먹을 자유와 반지하 단칸방에 살 자유가 자유인가? 그들 오스트리아학파는 복지를 위한 기본적인 정부의 개입이라도 시작되면 그것은 사회주의를 향한 '미끄러운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단초가 되어 사회주의 국가로 진입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1944년 하이에크의 주장대로 내리막길에 들어서 사회주의로 이행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정치인들이 써먹는 낡은 수사에 불과하다.

케인스 학파

케인스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거시경제학 분야를 창시하여 경제학의 정의를 바꾸었다. 거시경제학이란 경제 전체를 하

나의 단위로 보고 분석하는 분야이다.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근검절약하면 그 나라 전체의 수요가 감소하여 그 나라 경제가 불황에 빠질 수 있다. 한 사람의 지출은 곧 다른 사람의 소득이라는 원리이다. 분석하기 어렵고 복잡한 여러 이유로 수요가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축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저축 과잉이 발생하면 이자율이 떨어져 저축수요가 감소해서, 이에 따라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조건이 형성되므로 조만간 과잉 상태가 해소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케인스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투자가 줄면 전체적으로 지출이 줄고 따라서 소득도 줄어든다. 소득이 줄면 저축도 줄어든다. 저축은 소비하고 남은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이 줄었다고 생존에 꼭 필요한 소비가 줄지는 않는다. 결국 저축은 줄어든 투자 수요에 맞춰서 같이 줄어든다. 잉여 저축이 줄어 이자율을 낮춰야 하는 압력이 생기지 않고, 따라서 투자에 대한 추가적 자극도 생기지 않는다.

케인스는 완전 고용이 가능할 정도로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신기술, 금융시장의 과열 등의 특별한 사건으로 잠재적 투자자들의 야성적 충동이 자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해서 수요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920년대 발생한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가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수요를 증가시켰다. 비슷한 시기에 히틀러 총통의 나치 독일은 군비확장을 통해 공황을 극복했다. 케인스의 주장을 각각 실천하여 수요를 진작해서 불황을 탈출한 사례들이다. 히틀러의 군비확장은 많은 사람을 죽고 다치게 했지만, 미국의 사회간접자본투자는 유효수요를 진작해 공황을 극복하는 디딤돌로 사용되었다.

케인스 학파는 고전주의나 신고전주의 학파보다 20세기 선진 자본 사회에 더 적절한 경제학 이론을 구축했다. 케인스식 거시 경제 이론은 19세기 말 이후 예

금자와 투자자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저축과 투자가 일치되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인식한 데서 출발했다.

이와 더불어 케인스 학파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강조한다. 고전주의 학파는 이론이 형성될 무렵 금융시장이 아직 원시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금융에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신고전주의 학파는 케인스가 살던 때와 비슷한 상황에서 발전했지만,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성향 때문에 돈이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케인스 이론에서는 금융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1929년 대공황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케인스 이론이 그토록 유용했던 것이다.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통화량을 늘려 유효 수요를 진작시켜 위기를 돌파했다. 지금도 코로나바이러스로 2년째 고통받는 많은 나라들이 케인스식 해법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나라빚이 늘어난다며,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며 정부지출을 막으려는 주장은 정치적 주장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위기에는 케인스식 해법이 정석이고 현재까지 더 유용한 전략은 발견하지 못했다. 당장의 위기상황을 유효 수요를 억지로 늘리는 땀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위기 국면에 ‘짜잔’하고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좋은 섹션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케인스의 말처럼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는 죽는다.”

제도학과

개인은 사회의 산물이라는 개인의 사회적 성격을 과소평가하고, 심지어 무시한다는 점에서 고전주의와 신고전주의 경제학파에 반론을 제기하며 등장한 것이 제도학과 경제학이다. 이들은 제도(institution)가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개인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제도학파의 탄생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이라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명성을 얻는 ‘유한계급론’을 저술한 소스타인 베블룬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간의 합리성은 시공을 막론하고 변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찰하는 특정한 개인을 둘러싼 법률 등 공식적 규칙과 관습과 같은 비공식적 규칙으로 이루어진 제도에 의해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사회 제도는 구성원들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변화한 구성원들이 다시 제도를 바꾸게 된다고 베블룬은 믿었다. 수요와 공급곡선이 가격을 결정하고 결정된 가격이 다시 수요나 공급을 결정하는 가격의 자원 재분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은 사회 집단의 여론과 유행에 아주 민감하여 개인의 취향도 사회의 유행에 동기화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주변 사람들의 소비가 자신의 소비에 큰 영향을 주고 또 받기도 하며,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정도의 경제 수준 이상이라면, 그때부터는 필요에 의한 소비라 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과시적 소비의 형태를 띤다. 정치의 계절인 지금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관련 뉴스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척도가 되기도 하지만, 그 발표된 지지율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한다. 계급에서 독립되고 합리적인 개인의 소비를 통해 경제를 분석

하는 신고전학파의 방법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하준 교수의 분류는 몇 가지가 더 있다. 개발도상국 경제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개발주의 전통, 자본주의는 경제 발달의 막강한 동력이지만 기업이 대형화하고 관료주의화 하면서 쇠락하게 되어 있다는 슈페터학파, 인간은 충분히 영리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을 통해 의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행동주의 학파 등이 있다.

우리는 경제학에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다양성을 보존하고 권장해야 한다. 각 학파가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단순히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학파를 아는 것은 경제라는 복잡한 대상을 더 풍부하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게 해 준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이론적 접근법을 가진 학문 분야가 단일한 지적 성향을 가진 학문 분야보다 변화하는 세계에 훨씬 더 잘 적응할 것이다. 다양한 유전자 풀을 가진 생물 집단이 충격에서 더 잘 회복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주요 국가의 정부가 코로나 위기가 터진 직후 자유시장 경제학을 버리고 케인스 학파의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면 전 세계는 더 큰 시련과 불황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것이다. 경제학의 다양성이 인간 세상의 고통과 위기를 완화해 줄 것이다. 